Bio 생존전략 - ①M&A

BioChem 생존 "몸집 불리기 시대"

Amgen- Immunex 합병 시가총액 700억달러 … 중견기업 생존 갈림길

생명공학 시장이 확대되면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생명공학기업들도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76년 최초의 생명공학기업 Genentech가 설립된 지 26년이 흐르는 동안 BioChem 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함으로써 2001년 세계 생명공학산업 시장규모가 3308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공학산업은 2000년과 2001년의 자금 조달규모가 각각 315억달러, 147억달러에 이르는 등 최근의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FDA가 승인한 생명공학 신약이 2000년 21개, 2001년 16개에 달했고, 2002년에도 많은 생명공학 신약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Ernst & Young에 따르면, 현재 300개 이상의 생명공학제품이 임상시험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2007년에는 무려 240여개의 신약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돼 성장세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생명공학산업이 성장기로 접어듦에 따라 관련기업의 수가 급증하는 등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차츰 의약산업과 생명공학산업의 구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기존 제약기업의 참여 증가로 경쟁 가속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생명공학기업들의 고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생명공학기업의 성과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수준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생명공학기업들이 고수익을 내는 제품 하나만을 보유하고 있어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얻는 것이 가능했으나, 생명과학 분야가 점점 세분화돼 소규모 전문기업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해 차별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생명공학기업들은 경쟁 심화 및 투자자들로부터의 압력 가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수, 합병 등을 통한 몸집 늘리기에 집중하게 돼 2001년 말에는 거대 제약기업과 맞먹는 매머드 생명공학기업들이 탄생했다.

대표주자인 Amgen은 2001년 12월 이루어진 Immunex와의 합병으로 연간 매출 55억달러, 시가총액 700억달러에 이르는 세계 6위의 '제약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밖에 매출 20억달러의 Millennium Pharmaceuticals과 COR Therapeutics의 합병, 15억달러의 MedImmune과 Aviron의 합병 등이 연달아 성사되는 등 최근 들어 합병 건수가 크게 늘고 있고, 합병규모 자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생명공학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합병을 통한 대형화 현상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액 5억-10억달러 수준의 중견 생명공학기업들의 사업환경은 점점 악화돼 대형기업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특한 사업전략으로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견기업들은 사업영역을 집중시켜 전문화를 꾀하고, 독창적이고 참신한 기술을 보유해 미래 성장성을 부각시키거나 대기업들이 놓친 틈새시장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19>